

여성의 자아구조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자아구조에 대한 접근을 여성의 심리 내지 성격에 대한 접근으로 시도되었다. 여성의 자아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 프로이트를 위시하여 융, 아들러와 같은 정신의학자들은 물론 여성심리학자로 하는 호나이와 같은 여성심리학자들조차 여성의 자아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 남성을 염두에 둔 생물학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의 자아와 정신구조에 대한 이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임으로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측면만으로 단순화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남성 아니면 여성'이란 식으로 여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여성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자아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여성의 생리적, 심리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여성의 자아 · 여성론 · 여성의 정체감

[†] 교신저자 : 박아청,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번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교육학과
E-mail : acp@kmu.ac.kr

I. 머릿말

여성론이나 여성문제는 지난 수 년 동안 다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정치나 경제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으로 전개된 것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삶의 스타일에 대한 연구와 같은 종류들이다(예컨대, 곽삼근·이해주, 1999; 이수장, 2001; 장휘숙, 1996 등). 이와 같은 여성론의 입장의 근거에 있는 정신구조, 또는 그 자아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여성론을 주요한 논제로 등장하게 한 가장 주요한 요인이 사회경제적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생각된다(노인숙, 1996).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어떠한 여성론도 그 밑바닥에는 남성과 여성과의 심리적 상이성에 대한 이론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순정 등, 1998). 여성론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성별간의 상이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여성론에 대한 논의도 우선 여성론의 핵심적인 주장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여성과 남성간의 자아에 대한 비교 또는 성별간의 상이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서구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발견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행된 여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남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이 성격심리에 대한 이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30여년 전부터 도허티(Doherty, 1973)와 같은 연구자는 예컨대, 일반적인 성격심리에 관한 연구에서도 남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남성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성격이론을 구축해야 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그녀에 의하면 정신분석의 목표 뿐 아니라 로저스(Carl, R. Rogers)의 인간적 성장을 목적에 둔 카운슬링도 남성의 이론에 불과하다. 인간적 성장이라고 하지만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Doherty, 1973).

여성의 심리적 특징으로서 흔히 지적되어 온 수동성, 복종성, 변덕성 등의 심리는 실제로 보편성을 가진 정신구조인 것인가? 과연 여성의 성취동기, 즉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의욕이 남성 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을 보면 남성 에 비해 여성의 이러한 특성은 일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입시생의 성적을 보면 남학생을 능가하는 성적을 보이는 여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고, 수석졸업도 여학생인 경우가 흔히 보게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항상 여성은 가르침에 순종하다보니 좋은 성적을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신(誤信)은 여성보다도 우위에 서기를 기대되어 온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자신이 자신의 성취도를 낮게 보는 것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취업에 관한 한, 일반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으로 등장한다. 그녀들에게는 앞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마치 앞날이 희미할 뿐이다. 여기에서 생기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아방어의 구조화가 시작된다. 이른바 청년기 고유한 아이덴티티의 위기가 젊은 여성을 휩싸게 되는 것이다. 이 위기는 젊은 여성만이 아니라 유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은 물론, 중년에서 갱년기의 여성에게도 '자신은 정말 별 볼일이 없는 사람'으로 의심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상실시킬 정도로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게 한다.

아마도 오늘날까지 사회병리학에서 상식으로

생각해 온 범죄나 자살문제는 남성의 것으로 여긴 경향은 최근 수년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젊은 여성의 자살과 비행의 급증뿐 아니라 갱년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보이는 이러한 동향은 여성의 자아에 새로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오늘날 여성의 성격구조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시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현상의 기저에 깔린 구조를 고찰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의 성격발달에 대한 심리이론적인 측면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성격이론

현대의 여성은 사회적인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정체감의 위기에 직면하는 장면이 많아지게 되어 이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과 가사를 완전하게 수행하려고 하여 심신이 피곤에 지친 여성이나 결혼인가 취업인가 하는 진로상담이나 결혼상담 또는 이혼을 위한 상담 등, 이러한 요구는 점점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며, 전문상담가의 의해 수립된 이론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그 발달적 변화를 설명하고 건강한 제언을 줄 수 있는 성격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배운 성격이론의 대부분이 서구의 이론가들이 주장해 온 것들이다. 서구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접근의 밑바닥에는 까지의 주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는 사실은 일찍이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지적한 바와 같다(이용호 역, 1999). 한가지는 고대 그리스 이후, 남

성이 인간의 원형(prototype)으로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성에 의해 관찰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셈이다. 그 특징의 정도가 큰 가 작은가로 여성의 특징이 정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은 남성보다도 감정적이고, 지적으로는 한층 열등하다고 하는 식이다.

또 한 가지는 인간성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인식과 감정을 2분할하여, 인식은 남성을 특징을 지우지만 감정이나 정동은 여성의 것이라고 보는 생각이다. 합리적인 인식과 이에 수반하는 행동은 적극적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왔지만 감정이나 감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심하게는 감정과 같은 것은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저해요소로 보는 편견을 가진 채 이러한 것이 여성적이라고 판단해 왔다는 것이다. '이성적인 남성'과 '마음씨 따뜻한 여성'과 같은 표현은 오랫동안 수용되었던 남성관, 여성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라 할 수 있다.

서구문화의 전통에 있는 정신(지성)과 신체(감각, 감정)의 2원론 나아가서 지성에 대해 동등한 수준이 아닌 우위성과 감각이나 감정으로 향한 열등시는 현대심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격이론의 기저에 넓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 특징으로 본다. 남성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치장하려 하면 곧 웃음거리가 되거나 또는 남자답지 못한 인물로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과 같은 복장을 하거나 치장을 한 남성은 '기분이 내키지 않는 성도착자'란 꼬리표를 붙여 소외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남성이 어떠한 색깔의 복장을 하든 귀고리를 달든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으며, 오히

려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전략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흔히 노동복으로 보았던 불루진을 입은 채 온갖 장소를 다니고 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의(定義)의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변화에 대응한 성격이론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다. 전통적인 프로이트이론이나 융심리학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립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남성화로 이해되어 때로는 그것이 모성상실현상으로 단락적으로 연결시켜버려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는 ‘아버지없는 사회’에서의 남성의 위기로 흔히 주장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현대의 성격이론 가운데서 주요한 몇 가지를 들고, 그들의 여성론 가운데 자아의 구조에 대한 견해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먼저 고찰해야 할 이론은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프로이트의 이론이라 생각된다.

III. 프로이트의 성차운명론

“anatomy(남녀의 해부학적 차이)는 운명이다”라는 프로이트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론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페니스(남근)의 유무는 분명한 생물학적 사실임에 틀림이 없고, 나폴레옹의 “역사는 운명이다”라는 말에 대응시켜 프로이트가 말한 내력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프로이트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한층 불완전하고, 초자아(무의식의 양심)도 약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자신이 남성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속의 섭섭함을 남성애의 증오 또는 선망이란 형태로 여성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이기고 싶어하고 공격

적인 여성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감정을 그는 남근선망(penis-envy)이라 불렀다. 이 개념은 여성의 차별구조를 옹호하는 논리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프로이트는 그의 논문 「Female sexuality(여성적 성)」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거세 콤플렉스가 외디프스 콤플렉스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페니스선망의 영향에 의해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구속으로부터 피하여 외디프스의 정황 속으로 마치 피난처에라도 숨는 듯이 피해 들어간다. 거세에 대한 불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외디프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도록 남자아이를 내세우는 주요 동인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자아이는 외디프스 콤플렉스 속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게되어 나중에 극복했다고 손치더라도 불완전한 그대로인 것이다. 초자아의 형성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초자아는 그것이 문화적 의의를 얻으면 얻을수록 강함이나 독립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평균적인 여성적 성격에 미치는 이러한 작용을 지적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Freud, 1961, p.253).

이처럼 여성의 경우는 초자아의 건전한 발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기평가나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부모나 그 외의 중요한 인물(남편이나 교사 등)에 맡겨버린다는 것이다. 이 경향은 청년기 이후가 되어서도 지속되어 때로는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투표행위를 할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모나 남편 또는 남성들에게 의존해버리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또 여성에게는 즐거이 고통을 수용하는 특징, 즉 배조히즘이 성의 구조와 사회적 압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여성론은 19세기 과학의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견해와 너무 가깝다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1970년대에 일기 시작한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그의 이론의 운명론적인 측면이 강조된 남근선망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받아왔다.

본래 프로이트는 당시 사회문화적인 인간관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도전한 인물이었다 만큼 남성은 능동적이지만 여성은 수동적이라고 하는 진부한 구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생식면이나 공격행동면에서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면서부터 여성에게 부여된 특성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인 관습이 여성다움으로 보는 수동적, 피동적인 태도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는 앞서 인용한 논문의 결론부분에서는 “성적 기능이 미치는 영역은 매우 넓은데 그러한 사람 한 사람 여성은 그 다른 점에서는 한 개의 인간존재임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IV. 융의 페르소나와 아니무스

융의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과학적 합리주의에 비해 로맨틱한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과학적 심리학의 영역에서 그의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생각할 때, 의식과 무의식의 상보적 통합성을 중시하고, 무의식의 심층에는 원형으로서 아니마(anima-여성상) 또는 아니무스(animus -

남성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또 인간이 의식에 대해 적응해 가는 태도를 페르소나(persona)라고 부른다. 사회적으로 기대되어 있는 역할행동이 이것이다. 예컨대, 여성의 경우에는 친절 또는 복종성 등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특징이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그것에 대해 대상적(代償的)인 아니무스가 무의식에 존재함으로써 상보적 통합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융은 신화나 꿈의 상징 분석을 행하고 있는데, 어떤 꿈의 분석 속에서 그 꿈에서 출현하는 향아리와 단검이 각각 여성 원리와 남성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이것들은 대립하는 것의 결합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향아리는 받아들이거나 속에 집어넣은 그릇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적인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이고 생명의 흐름인 아니마를 안으로 포함하는 육체의 상징이다. 한편, 단검은 찌르거나 관통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적인 것이다. 이것은 자르거나 구별하거나 분할하는 것으로 남성의 이성원리(logos)의 상징이다(Jung, 1961, p.194).

통속적인 의미에서 여성다운 태도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무의식면의 대응으로서의 아니무스가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완고하고 집요한 로고스인 것이 특징적이다. 본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개 여자다운 여자 대학생이 예컨대, 남녀평등의 의견(아니무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인 타협 또는 조정하려는 태도 또는 언행을 비합리적이라고 배척하려고 한다. 그 과격성이 지금까지 남성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어 온 반이성적이고 감성적 태도(아니마)가 상대가 되는 남성측에게

로 분출해 나오는 것이라 설명한다는 것이다. 본래 부부간의 대립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남편, 처 각각의 페르소나와 아니마·아니무스의 상보적 구조의 대립으로서 해석할 수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이 점차 높은 교양을 익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존중하게 되는 것은 융심리학에서 보면 여성의 위기를 만드는 것이 된다. 아니마는 항상 타인과의 협동을 목표로 하지만 아니무스는 그 예리한 절단의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합리적인 사고에는 그 기본으로서 분류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현대 여성이 갖는 아니무스의 단검이 예리한 남성비판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동시에 자신의 여성다움을 억압하여 남성적으로 휘두른다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적으로 거세된 남성에 있어서는 여성이 아니무스를 목표로 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독립해 가는 것만큼이나 큰 위협이 없을 것이다.

또 일반남성은 여성이 정당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뚝뚝하고 이론적인 여성은 싫다”든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든가 하는 식의 굴욕적인 언사를 슬며시 또는 취한 상태에서 내뱉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미성숙한 남성에 대해서 적합한 여성은 자신 속에 있는 아니무스를 완전히 억압하고 개성적으로도 자기주장적이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무스를 자각하고 있는 동성으로부터는 전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이지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니마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관습적인 여성역할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아니무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

는 여성을 쓸데없이 일으키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성이 속에 있는 아니무스에 눈을 뜨고 그것을 의식하고 자기를 실현해 가는데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 그 뒷면에는 아마도 두터운 남성우위의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여튼 비록 괴로운 길이 놓였다고 하더라도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개성적인 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V.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편견

앞서 살펴본 프로이트나 융은 모두가 인간의 생물성이나 무의식면에서 여성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들러는 남녀간의 불평등이 애정이나 행복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여 사회적인 넓은 시야에서 여성을 논하고 있다. 오늘날 ‘성의 정치학(sex politics)’이라 부르는 영역은 아들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들러는 아동상당운동이나 가족관계개선운동 등을 최초로 지도하고, 오늘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열등의식을 연구한 인물로만 이해되고 있다.

아들러는 1927년에 발표한 『인간성의 이해(Understanding Human Nature)』의 제7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기에서는 여성의 열등성에 관한 견해가 이른바 인류의 공유재산처럼 넓게 행해져 온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Adler, 1954). 또 성서나 일리아드를 비롯한 모든 시대의 전설, 동화 속에는 여성의 도덕적인 열등성, 즉 음험하고 위선적이며 믿을 수가 없고, 경솔하고 우매한 것 등 모든 불명예스러운 형용어구가 치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

대의 우수한 여성들까지도 노동임금면에서도 여성은 부당하게 경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들과 같은 논술은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손에 보는 신문지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요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성이 자신의 열등성을 자신도 모르게 믿게 된 것은 소녀시대부터 여성무능력설에 내몰리기 때문이었다. 당시 사회상황에 있어서는 소년가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아들의 논점은 앞서 언급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주장에 앞선 것으로 흥미롭다. 아들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남녀에 대해 재능검사를 실시한 바, 남보다도 뛰어난 성적을 나타낸 여성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Greener, Tseng, & Friedland, 1973). 그녀들에게 특이적인 것은 어머니가 독립적 직업을 가지고 있든가,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열등성 모델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여성적 열등의식은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이었다.

사회가 오랫동안 정해 온 여성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가 아닌가하는 면에서 여성은 3가지 유형(생활양식)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유형은 능동적이고 '남성화'의 방향으로 진전해 가는 여성이다. 형제나 남자친구들과 항상 경쟁하고 그것을 능가하려고 한다. 결혼을 좋아하지 않고 가령 결혼을 하더라도 가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으로 여성역할에 반항하는 여성이다. 왜 이러한 반항이 생기는가를 말하자면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의 2가지만이 허용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유능한 여성은 남성화하는 이외에는 길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에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이라 아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Ansbacher & Ansbacher, 1956).

두 번째 유형은 일종의 체념을 한 삶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종이나 겸손을 나타내는 여성이다. 사회적 무능력은 그녀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신경증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히스테리발작을 일으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도 여성역할을 억압하는 남성중심의 사회에 대한 저항 그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서 열등성과 종속성을 갖는 여성역할에 반항을 하지 않지만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제3의 유형이다. 자신의 무력성을 강조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일 지라도 남성에게 시키려는 모습으로 역시 반항하고 있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예컨대, 남성만이 유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교육에는 어찌되었건 아버지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어머니가 할 일조차 방기해버리는 경우이다.

어떠한 유형의 여성이라도 결혼하여 어머니가 되면 아이들에게 다시 편견을 주입시키려는 경향이 흔히 볼 수 있는데, 결국 악순환이 일어나 여성의 해방은 일진일퇴를 반복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양성간에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로부터 야기되는 긴장은 우리들 문화의 오류라고 보아 아들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여성의 열등성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남성의 우월에 대한 편견도 비록 양성간의 조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없었다고 할 정도의 긴장이 특히 모든 애정관계 속에 침투하여 모든 행복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때로는 파괴조차 한다. ...결혼을 일종의 비상탈출구로 보고 있는 다수의 소녀들이나 결혼 속에서 필요악만을 보고 있는 남성이나 여성을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균

형을 이루고 있는 특징은 사이가 좋은 것이 된다. 양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족생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복종은 참기 힘든 것이다. 양성간의 관계에서 의혹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모든 신뢰가 없어져버리고 전인류는 의혹에 쌓이게 된다.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과장된 이상은 요구, 예컨대, 충동, 영원의 동요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만들어 내는 것은 허영심과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요구로 특권적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공동생활의 자연적인 조건에 위배된다. 우리들에게는 지금까지의 부인운동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목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운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전인류의 행복과 삶의 즐거움은 결국은 여성이 여성본래의 역할과 화해하는 것이 가능한 제 조건이 조성되는가 아닌가, 남성이 여성에 대한 남성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닌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Adler, 1946, p.168).

아들러가 제기한 문제는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가 시사한 남녀공학에 의한 양성관계의 개선은 점차 진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들러가 통찰한 바와 같은 양성간의 권력구조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VI. 여성과 내적 공간론

프로이트는 물론 융이나 아들러는 정신분석학

적인 성격이론의 면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자아를 살펴 본 사람들이다. 그 후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하고 한층 사회적인 시야에서 성격이론을 고찰한 사람들이 있다. 호나이(Karen Horney)나 에릭 프롬(Erich Fromm) 그리고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등이다.

여성심리학자로서까지 일컫는 호나이는 신경증적 장애 또는 성격장애를 갖는 부인을 분석하면 흔히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나는 이들의 결정적인 갈등은 유아기에 일어나며 최초의 성격변화는 청년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들 변화의 시작은 월경개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프로이트의 기계적이며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부터 탈피하여 프로이트가 말하는 남성 성기에 대한 선망이라는 개념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호나이는 여성심리가 자신감의 결여와 애정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한데서 오는 것이지 해부학적으로 본 성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Horney, 1967). 그녀는 남성은 자신들의 창의적인 욕구를 외적으로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은 이러한 욕구를 외적 뿐 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호나이의 이른바 여성의 열등의식에 대한 입장은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며, 생물학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Symonds, 1991).

호나이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불안과 열등감의 문화적 요소를 분석하면서 서구문화에서는 남성은 만족스럽고 긍지를 가진 직업을 가지는데 비해 여성은 그러한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그것조차 부적절한 사실에서 서구여성의 불안과 열등감의 요인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호나이의 관찰이 서구문화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때,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는 여아가 경쟁적인

영역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근면성에 의의 있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프롬은 남녀의 성격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차이점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형성된 차이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보았다.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진 차이를 증대시키거나 때로는 말살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Fromm, 1973). 프롬의 주장은 결국, 남녀양성간의 성격차이는 그것이 문화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한, 결코 가치적인 차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프롬은 ‘삶’, ‘고독’, 또는 ‘자유’와 같은 주제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a psychological problem)’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에 일어나는 우열의 문제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자아심리학의 영역에서 특히, 성격이론의 발달 심리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 사람은 에릭 에릭슨이다. 그는 임상적인 관찰과 통찰에 근거하여 현대청년의 특징적인 아이덴티티의 위기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1963년에 미국학사원 주최의 심포지움 ‘미국여성’에 참가하여 발표한 논문 「Womanhood and the Inner Space(여성과 내적 공간)」은 그의 저서 『Identity: Youth and Crisis』(1968)의 제7장에 게재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박아청, 1990b). 에릭슨의 주장은 신체구조에서 성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주의자들(에컨대, Archer, 1992; Carlson, 1972; Gilligan, 1979 등)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여성운동을 제창한 케이트 밀러(Kate Miller)는 1970년에 발표한 『성의 정치학』 속에서 에릭슨이 캘리포니아대학의 아동복지연구소에서 10~12세 남녀아동 150명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아동들의 놀이를 관찰한 것을 자기의 명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행한 실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정의숙·조정호, 1999).

에릭슨의 관찰에서는 놀이가운데 남자아이는 외적 공간을, 여자아이는 내적 공간을 강조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이러한 것은 신체구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아는 여성의 신체모양이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안전하게 포함하는 생산적인 체내공간(자궁)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알고, 거기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여성적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놀이기술관찰에서 보여진 공간배치의 일반적인 해석으로 거론되는 해부학적인 해석과 또 성에 대한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사회적인 해석 모두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괄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그는 여성의 정체감 형성을 이해하는 데는 신체적·역사적·개인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해부학, 역사학, 심리학과 같은 어떤 한 개의 특정한 분야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 여성의 개인, 신체적 존재,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것이 ‘내적 공간’이고, 이 사실이 있기 때문이야말로 여성의 정체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은 내적 공간이라고 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것과 같은 활동양식 속에서만 스스로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rikson, 1964, p.597)는 것이었다.

Erikson은 이 내적 공간론에서 청년기 여성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통합적인 여성의 정체감 출현에 있어서 청년기에서부터 성숙기로의 이행단계가 인생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단계이고, “젊은 여성이 그 노동경력에는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배려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애인

의 사랑에 자신을 관여시켜 마침내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되는 과정”(1964, pp.598)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인생초기부터 분극화”(p.599)하는데 그것이 성인기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여성의 육체구조에는 선택한 남성의 아이를 잉태해야 할 ‘내적 공간’과 아이에게 돌본다고 하는 생물적·심리적·윤리적인 관여(commitment)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p.597)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정체감 형성과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물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내적 공간론에서 논의되는 Erikson의 여성론은 발표이래 프로이트의 여성론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당시 미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여성해방운동으로부터의 비판에 응하는 모습으로 그는 1975년에 출판된 『Life History and Historical Monumnet』 속에서 「Once More the Inner Space(다시 내적 공간에 대해서)」란 논문을 한 장으로 추가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새로운 여성성(feminity)이나 여성이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래에로의 희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새롭고 그리고 보다 총합적인 정체감의 전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의 존재와 여성의 신체와의 관련에 대한 그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여성의 신체의 특징(성차)과 역사성(생활사)과 성격의 3가지를 상호관련시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중복되게 주장한다. 그는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2가지를 중요시한다. 하나는 ‘발달위기’는 남녀 관계없이 동일한 계열에 있으며, 각 단계의 해결에 관련된 자아의 강도(ego-strengths) 역시 남녀 구별이 없다는 가설이다. 또 하나는 발달에 있어서 3가지 상호작용 요소들 즉, 신체적인 면(Soma, 해부학적 측면), 심리적인 면(Psyche, 개인적 경향 및 사회문화적 내용

(Polis)을 제시하고 이들 요소들이 각 단계의 위기에 직면할 때,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는 해결과 통합을 이룬다고 본 가설이다. 이와 같은 3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각 발달 위기에서 그 결과도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의 이론에서는 똑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에릭슨은 그의 이론에서 성차에 대해서 중복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에 경고를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 성에 관련된 어떤 독특한 경험을 인지하거나 긍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가끔 남성과 여성이 많은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면서도 남성의 아이덴티티와 구별하여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각때문인지 에릭슨의 저서들을 통하여 성과 성격에 관하여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다(박아청, 2001). 그의 이론에서는 성은 때로는 성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치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성예컨대 이성관계에 있어서)을 인지하여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의 이론을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에릭슨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의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존재가 한 신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한 개의 분할할 수 없는 퍼스낼리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한 집단의 규정된 한 구성원이란 뜻이다(Erikson, 1968, p.285).

에릭슨이 여성의 자아 정체감은 독특한 점이 많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논쟁(『Womanhood and the Inner Space』)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그의 대부분의 저서들에서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다(박아청, 2001).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이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생주기에 있어서 특정한 시점에서이다. 특히, 정체감, 친밀성 및 생산성 발달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디프스기라고 그는 주장한다. 앞서 에릭슨이 강조하는 것처럼 신체와 역사성 그리고 성격이론의 3가지면이 상호관련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의 여성론에 논의를 제기한 “여성은 여성이외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 미국여성에게 준 충격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유와 개인의 선택, 의사결정이 증시되어 그것에 의한 정체감의 확립과 다음 단계를 위한 선택의 호기를 갖는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이외로는 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빠져버리면 선택의 자유는 상실하고, 무엇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에릭슨에 의하면 여성만을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합해서 그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도 남성이외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면을 다루어 논의할 뿐 아니라 정체감 형성의 적극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과 함께 또 남성으로부터 다소 선망시되는 것이 여성의 내적 공간이다. 에릭슨의 주장은 정리하자면 여성도 남성도 정체감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 퍼스낼리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내적 공간이 갖는 적극적 긍정적인 의미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이후, 이 내적 공간론을 검토하려고 한 많은 연구가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 전개되었다. 내적 공간론의 기반이 되었던 관찰연구를 재검토하는 시도로서 버드와 클랜스 및 시메리(Budd, Clance & Simerly, 1985)가 수행한 아동의

놀이에서의 공간적 배치에 착안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에릭슨의 관찰연구에서 제시한 놀이공간을 재현하여 놀이에서 공간배치가 성기의 형태(genital morphology)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에릭슨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관찰의 결과에서 도구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질이 어떤 종류의 공간배치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버드(Budd) 등(1985)은 놀이공간의 배치에서 중요한 결정요소로서 사회적인 학습의 영향이나 성과 관련된 행동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그 때까지 많은 연구가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1970년 이후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된 것도 특징적인 사실이다. 오코넬(O'Connell, 1976)은 삶의 양식의 차이에 의해 여성의 정체감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삶의 양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친밀성의 단계가 정체감을 강하게 하고 있는 점에서는 내적 공간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삶의 양식의 차이과 정체감의 관련에서 그는 에릭슨의 내적 공간론이 남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양육한다는 삶의 양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삶의 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 여성에게 있어서도 남성과 동일하게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이 정체감 확립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의 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박아청, 1997, 1998, 2000a, 2000b; 박아청·이경혜, 1998)

또 내적 공간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검토로서 모건과 파버(Morgan & Farber, 198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현대사회에서 남녀의 역할변화에 관심을 두고, 에릭슨의 내적 공간론을 현대사회의 현상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는 친밀성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배경을 고려한 직업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관점, 여성의 인생선택에서의 가치체계의 다양화에서 기인하는 갈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에릭슨의 발달이론으로 여성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오코넬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측면에서는 에릭슨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삶의 양식의 차이가 정체감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직업선택 등 많은 요인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Ⅶ. 여성역할의 변화와 정체감 갈등

인간의 정신구조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사회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할은 그 인간에 있어서 사회내의 일 분담 및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관련되는 신분의 규정인 것이다. 역할은 사회체제를 유지시키고, 그 변동에 막는 작용을 한다. 역할을 훈련하는 임무는 그 사회의 사회화의 기관과 그것을 담당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다. 사회화의 기관이라면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가정, 그리고 학교 나아가서 대중매체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나면서부터 부모, 형제자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게 되고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간의 관계 속에서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그(=그녀)의 자아형성의 모습도 좌우된다.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유명한 가족의 역할구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가족체제에 따라 남녀의 역할구정이 달라지며, 이는 또 그 사회, 문화에 따라 가족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성역할관이 구성원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지금까지 수행된 여성의 정체감 발달을 탐색한 연구들은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의 질, 즉 '관계성(relatedness)'에 주목하고 자아발달의 남녀차이를 논의하고 있다 (Josselson, 1973, 1987; Gilligan, 1982; Michael & Adams, 1999; Cramer, 2000). 이들의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관은 관계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정체감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규정 방식은 문화에 의해 한층 다양성을 띄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방식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바뀌게 되었음을 말한다. 특히, 가정에서의 남녀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종래의 파슨스식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의 삶의 방식에는 전통적인 가정의 처, 어머니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업 등의 가정 외의 역할이라고 하는 복수의 기반을 자아정체감 가운데 갖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김명자, 1994; 양승주, 1993; 이경혜, 1997; Dolin, 1995). 이른바 파슨스식의 부친의 역할은 세력과 도구성의 면에서 높고, 표출성에 있어서는 낮은데 비해 모친의 역할은 세력과 표출성의 면에서는 높고 도구성에 있어서는 낮다고 하는 식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서 비롯한 자아의 모습이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여성의 역할은 도시핵가족의 경우, 남성의 역할에 비해 동시적으로 다원적인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남성은 '낮에는 가정을 나가 근로자의

역할을, 저녁에는 귀가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특히, 남성의 작업은 가정생활과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가정 속에서 어머니, 처, 가사와 같은 3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 외에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도 가정 내에 있을 때에는 역시 3가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성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여성의 3가지 임무를 모두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역할간의 갈등이나 분열일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로서 가정 내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약한 입장의 아이들에 대해서 필요한 보살핌이 어렵게 되어 마침내는 정서장애아로 진단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사회변동 과정에서 가족, 일 그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여성을 둘러싼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은 여성의 정체감 혼란을 일어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업과 결혼이라는 문제에 당면하는 청년여성, 또는 직업과 가정에 대한 '양자택일이나' 아니면 '양립이나'를 놓고 갈등을 겪어야 하며, 양립시키다 하더라도 취업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성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겪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다. 이러한 정체감 혼란이 실제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국한된 면에서만 보더라도, 결국 취업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정체감 혼란은 여성자신들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동시에 사회전체의 성별구실, 일과 결혼에 관한 가치 및 규범들에 있어서의 재정립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전업주부의 역할을 둘러싼 문제 역시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전업주부라 불리우는 가정 주부들은 취업여성이 겪는 사회구조적 제

약에 의한 갈등양상과는 달리 자기자신의 내면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오늘날에도 농가와 같이 가정에서 주부가 유력한 생활중사자인 경우에는 존재의 의미는 쉽게 실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회지에 거주하는 주부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기회를 상실하고, 그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정부인은 자신 인생의 의미나 선악에 대해서조차 사적이고 감정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결혼과 육아가 인생의 설계에서 중심을 이루던 197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박아청, 1984, 1990, 1991).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 여성은 카미너(Kaminer, 1994)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 그 자체로서의 정체감은 확고하게 되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정생활의 운영과 사회생활에서의 역할간의 갈등도 한층 심화되어 가고 있다"(p.4)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여성은 그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때 그 기반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역할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여성은 다양한 자아의 발달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특히, 여성은 중년기를 넘어가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이 끝남에 따라 새로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를 맞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듀발(Duvall, 1985)은 이 시기를 '빈 보금자리 시기(empty-nest period)'라 부르고 새로운 자각에 눈을 뜨는 시기로 보았다. 그런 면에서 제2의 사춘기(middlescence)'(Duvall & Miller, 1985, p.5) 부르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VIII. 맺는 말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여성의 자아, 정신 구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결코 단순화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성격구조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전의 '남성 아니면 여성'이란 식으로 여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여성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은 삶의 시작은 생리적인 존재로 출발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심리적인 존재가 되면서 남녀간의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주장되어 온 여성의 열등성이나 남녀차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론 또는 주장의 근거에는 신체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자아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에릭슨이 인간심리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여성의 자아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도 결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는 분리된 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 성장하는 여성의 자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삼근, 이해주 (1999). 여성의 자아개발과 자원활동. 여성사회교육, 제4집, 한국여성사회교육원, 5-23.

김명자 (1994). 중년기의 연구. 서울: 교문사

김양희 (1995). 여성지위의 실질적 향상을 저해하

는 심리기제. 여성연구, 48권, 한국여성개발원, 93-118.

김영희 (1996). 여성심리학의 현황과 전망. 동덕여성연구, 창간호, 동덕여자대학교, 91-110.

노인숙 (1996). 왜 여성학인가. 서울: 학문사

박아청 (1982).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성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어프로우치. 지도상담, 제7집,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49-62.

박아청 (1984). 변모하는 한국 중년여성의 생활스타일의 모색. 계간성인연구, 제2권 제2호,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46-60.

박아청 (1999). 한국인의 '자기'에 대한 의식 교육인류학연구, 제2권 제3호, 한국교육인류학회, 41-55.

박아청 (1990a). 여성의 아이덴티티 그 현재와 미래(1). 생활심리, 한국심리상담연구소, 56-59.

박아청 (1990b).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 계명행동과학, 제3권 제1호, 계명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55-75.

박아청 (1991). 여성의 아이덴티티 그 현재와 미래(2). 생활심리, 한국심리상담연구소, 68-71.

박아청 (1997). 성인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연구의 경향과 전망. 교육학연구, 제14권 제1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아청 (2000a). 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일고찰. 사회과학논총, 제19권 2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7-61.

박아청 (2000b).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15-126.

박아청 (2001).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대한 Erikson이론의 재검토. 인간발달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인간발달학회, 49-64.

박아청, 이경혜 (1998). 중년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교육학연

- 구, 제16권 제1호, 계명대학교 교육연구소, 183-198.
- 양승주 (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제11권 제3호, 여성연구원, 133-156.
- 이경혜 (1997). 중년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 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 이미선, 이정우 (2001). 농촌 기혼남녀의 자아정체감 및 생활양식에 따른 가정자원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1-203.
- 이수자 (2001). 몸을 통한 여성의 주체적 자아 찾기: 후기 근대사회의 여성주체와 몸의 정치학. *여성연구논총*, 제2집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21-145.
- 이용호 역 (1999). 제2의 성. 서울: 백조출판사.
- 장휘숙 (1996). 여성심리학: 여성과 정치. 서울: 박영사.
- 정의숙, 조정호 공역 (1999). 성의 정치학. 서울: 현대사상사.
- 허란주 역(1995).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In a different voice*, Gilligan, C.). 서울: 철학과현실사.
- 홍순정 등 (1998). 여성심리학: 여성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Adler, A. (1946). *Understanding Human Nature*. New York: Fawcett.
-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New York: Basic Book.
- Archer, S. L. (1992). A feminist's approach to identity research. In G. R. Adams, T. P., Gullotta, & R. Montemayor(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Vol. 4.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pp.25-49), New Park, CA: Sage.
- Budd, B. E., Clance, P. R., & Simerly, D. E. (1985). Spatial configurations: Erikson reexamined. *Sex Roles*, 12(5-6), pp.571-577.
- Carlson, R. (1972). Understanding women: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17-32.
- Cramer, P. (2000). Development of Identity: Gender Makes a Dif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34, No. 1, 42-72.
- Doherty, M. A. (1973). Sexual Bias in Personality Theo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4, No. 1, 67-74.
- Dolin, T. (1995). Fictional territory and a woman's place: regional and sexual difference in 'Shirley.' *ELH*, Spring,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Duvall, E., M., & Miller, B. C. (1985). *Marriage and the Family Development* (6th Ed.). New York: Harper & Row.
- Erikson, E. (1964). The Inner and Outer Space: Reflections on Womanhood. *Daedalus*. XCII, 2, 582-606.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rikson, E. (1975). *History and Historical Monument*. New York: Norton.
- Freud, S. (1961). Female sexuality.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1, London: Hogarth Press, 221-246.
- Fromm, E. (1973).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New York: Rinehart.
- Gilligan, C. (1979). Women's place in man's life cycle. *Harvard Educational Review*, 49(4), 431-446.
- Greever, K., Tseng, M., & Friedland, B. (1973).

- Development of the Social Interest Index. *Journal of Consultant and Clinical Psychology*, 41, 454-458.
- Horney, K. (1967). *Feminine psychology*. New York: Norton.
- Josselson, R. (1973). Psychodynamics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 3-52.
- Josselson, R. (1987).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Jossey-Bass.
- Jung, C. G. (1961). The theory of psychoanalysis. In *Collected works*. Vol. 4.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Kaminer, W. (1994). Whiter feminism? Feminism's identity crisis. *Current*, Jan 1994, Helen Dwight Reid Educational Foundation, 4-12.
- Michael, D., & Adams, J. (1999). Reevaluating the Identity Status Paradigm: Still Useful after 35 Years. *Developmental Review*, Vol. 19, No. 4, 557-590.
- O'Connell, A. N. (1976).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identity synthesis and resynthesis in traditional, neo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44, 675-688.
- Symonds, A. (1991). Gender issues and Horney theor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51,(3).

A psychological review on personality structure in female

Park, Ah-Chung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In this article, those psychological aspects of ego in woman was examined a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an investigation of female identity formation. Especially psychoanalytic approaches including Freud, Jung, Adler, Horney, Fromm and Erikson on the development of female ego which emphasized on sex differences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those theories were wrong biases and had obvious weaknesses due to the biological basis for woman's inferior. From viewing the previous studies we can concluded that although women may view themselves as inadequate compared the man, they to so for societal reasons, not because they were born female. and if women feel unworthy, it is because they have been treated that way in male-dominated cultures. It was suggested that the reasonal and desirable approach of female ego have to consider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feminine psyche.

Keywords : ego in female • faminst theory • woman's ego-identity